

# **빈곤근로자의 일과 생활**

**-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

**1998**

**한국노동연구원**

## 目次

### I. 序論

### II. 貧困과 삶의 質

1. 일 영역
2. 생활 영역

### III. 研究方法 및 調査對象者의 特性

1. 研究方法
2. 調査대상자의 特性

### IV. 貧困勤勞者의 일

1. 고용불안정 : 생애 직업이동 상황
2. 근로조건과 건강 문제
3. 교육과 기술의 부족 : 낮은 삶의 질과 빈곤의 재생산

### V. 貧困勤勞者의 生活

1. 주거생활의 질
2. 주요 소비생활의 패턴 : 자녀교육과 의료 문제
3. 여가와 공동체 생활의 특성

### VI. 結論 및 政策提言

### 參考文獻

### 附錄

## I. 序論

IMF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포함한 강력한 경제구조조정 요구에 따라 고용불안이 증대하고 있다. 실업과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임시직 노동의 증가<sup>1)</sup>는 빈곤상태에 노출될 근로자의 수를 크게 늘리고, 또 이미 빈곤근로자로 분류되는 근로자의 생활상태를 점점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절대빈곤율이 산업화와 더불어 크게 하락해 오긴 했지만,<sup>2)</sup>아직도 소득면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에 있는 가구, 즉 절대빈곤에 속하는 가구가 도시인구 전체의 10%가 넘고, 흔히 상대적 빈곤선으로 통용되는 도시가구 평균가계지출의 50% 이하의 소비지출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도 20%에 이른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근로자 내의 임금철폐지격차도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경향이다. 이처럼 본격화되고 있는 빈곤 문제의 심각성은 빈곤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방안과 빈곤 문제의 근본적 해결대책에 대한 깊이있는 정책적 논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최근 외채위기 직전까지 지속된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의 그늘에 가려 빈곤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크게 주목 받지 못하였다. 1995년 이후<sup>3)</sup>쏟아져 나온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1995; 채창균, 1996; 윤병식 외, 1996; 이현송, 1997)은 국가간 비교분석을 위한 사회지표의 구성, 혹은 삶의 질의 여러 하위 영역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 새로운 연구분야를 개척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총체적으로 제시된 통계수치 속에서 빈곤상태의 삶의 질은 일반적인 삶의 질 수준과의 차별성이 부각되지 못한 채 묻혀 있는 상태이다. 특히 이제까지의 빈곤 문제 연구가 영세 소생산업자를 포함한 비공식 부문 전체, 혹은 도시 무허가지역 거주 빈민의 실태조사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았던 만큼 빈곤근로자의 삶의 질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는 더욱 드물다. 정치민주화로 활성화된 노동운동이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었다는 점 역시 대기업 근로자의 상태와 의식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취약층 소기업이나 임시취업용 건설직, 하위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을 적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도로, 빈곤근로자를 위한 그리고 빈곤근로자 부문의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확충노동복지정책의 입안과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제언과, 앞으로 보다 세련된 대규모의 빈곤근로자 삶의 질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IMF 위기가 가져온 저성장을 극복하고 고부가가치첨고기술첨고임금 산업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높은 교육수준과 다기능을 갖춘 양질의 인적자원이 필수적이다. 빈곤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는 단순한 복지증진의 수준을 넘어서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점에서 큰 중요성을 가진다.

주석 1) 통계청에 따르면 1997년 월평균 실업자수는 전년보다 무려 30.8%가 늘어난 55만 6,000명이었고 연평균 실업률도 1996년에 비해 0.6%포인트가 증가한 2.6%였다. 정규직 증가자는 3.3% 줄어든 반면 일용직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는 각각 8.7%, 5.2% 늘었다(조선일보). (1998. 2. 13).

주석 2) 1995년 사회개발정상회담에서 행한 한국대표의 연설문에서는 한국의 절대빈곤층이 1965년의 41%에서 1995년에는 4%(생활보호대상자의 규모)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절대빈곤층의 규모는 공적부조의 포착률이 낮고 생활보호대상자 자격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일반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수배에 이르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 예로 1993년도 정부의 생활보호기준 14만원 이하의 소비생활 가구원의 비율은 13.5%로 나타났으나 동년도 생활보호가구의 비율은 4.5%에 불과했다(박광준, 1997).

주석 3) 정책결정자들이 경제성장에 걸맞는 복지국가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이 1995년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우리의 경제력을 8위, 삶의 질을 32위로 평가한 즈음이었다. 최빈국에서 OECD 가입국으로 급부상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복지분야가 완전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도 일류화되어야 한다는 명제 하에 그 지위가 재규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의 복지구상이 1995년 발표된 것을 필두로 청와대에 사회복지수석실이 신설되었고 1996년에는 삶의 질 향상이 6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채택되었다. 국민복지기획단에 의해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이 발표된 것도 이 시기와 일치한다.

## II. 貧困과 삶의 質

빈곤이란 적절한 삶의 질이 결여된 상태를 말한다. 빈곤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절대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듯이,<sup>1)</sup> 삶의 질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른 가치관이나 생활 스타일을 지닌 사람에게 삶의 질이 의미하는 바나, 서로 다른 발전단계에 있는 사회에서 중시하는 질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1990년대 후반<sup>2)</sup>을 사는 우리나라의 빈곤근로자의 삶의 질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질을 구성하는 적합한 하위 영역들을 가려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1. 일 영역

충분한 소득을 제공하는 안정된 직장은 근로자의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 요소이다. 빈곤근로자는 이 기본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이유는 실업보험의 미비로 인해 고용불안정이 주는 고통이 완화되지 못한 채 빈곤근로자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준다는 데 있다.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이라는 사후 구제적인 차원보다는 실업의 예방, 인력수급의 원활화, 고용구조의 개선, 근로자의 능력개발 등 적극적 인력정책을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로 개발” (노사관계부문 실무 책임반, 1993, 16쪽)된 고용보험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사회보장적 측면이 취약하였다. 현재까지 10인 이하 고용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그리고 시간제, 일용, 계절적 또는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사회보험의 안전망이 가장 필요한 대부분의 빈곤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은 유명무실한 것이다. 고용불안정과 잦은 직업이동은 또한 퇴직금의 적립을 어렵게 하고 근속연공에 따른 임금인상 효과를 없애 빈곤근로자를 저임금에 지속적으로 묶어두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빈곤근로자의 생애 직업이동 상황을 개별적인 직업사(史)를 통해 알아보는 것은 삶의 질의 가장 기본적인 차원을 탐구하는 데 필수적인 한 부분을 구성한다.

안정되고 충분한 수입이 제공되는 일자리라는 그 기본조건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기초한 케인즈식 복지국가의 건설에 의해 만족되었을 때 서구 산업국가들은 일 영역에서의 근로자의 삶의 질을 좀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근로생활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향상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sup>3)</sup>포디즘에 기초한 노사 타협은 근로자의 고용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나 탈숙련으로 인한 지루함과 관료적 통제에 의한 비인간화라는 새로운 문제를 가져온 것으로 여겨졌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영참가와 팀작업에 기초한 산업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앞서서도 지적되었듯이 대다수의 빈곤근로자는 고용안정을 추구하기에 급급하므로 산업민주주의를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깊이 있게 고려할 만한 처지에 놓여 있지 못하다. 장시간 강도 높은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빈곤근로자에게 훨씬 절박한 삶의 질의 위협요소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의 가능성이다. 근로조건상 건강을 해칠 만한 자리에서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그리고 가구주의 질병이 빈곤을 지속시키는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이므로 근로조건과 건강상태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일이 빈곤근로자의 근로생활의 질을 파악하는 데 더 적합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빈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차원적인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교육 수준과 기술 수준이다. 교육 수준은 노동시장에서 안정되고 좋은 직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핵심적 자원임과 동시에 지적인 자기성장의 기회를 부여해 준다는 점에서 빈곤근로자의 삶의 질 자체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 낮은 삶의 질을 방지하고 빈곤을 재생산하는 연결고리를 끊어 줄 수 있는 중요한 돌파구는 빈곤근로자에 대한 재교육과 기술 습득에서 얻어질 수 있다. 스웨덴이 빈곤을 없애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빈곤화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를 재훈련·취재교육시켜 소득보장정책의 부담을 덜어 주면서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적부조—생활보호대상자 지원정책—에 기반한 이차적인 소득분배정책<sup>4)</sup>을 기본적인 빈곤정책으로 사용함으로써 재교육<sup>5)</sup>을 통한 빈곤의 자율적 해결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 결과 노동시장이 제공하는 가장 하위의 직업들을 전전해야 하는 빈곤근로자는 기술 습득보다는 자영업으로의 전환<sup>6)</sup>을 통해 그 상태를 벗어나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자본을 요구하는 이런 직업간 전환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므로 빚을 남기고 다시 원래의 직업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재교육과 기술교육 실태에 대한 조사는 따라서 빈곤근로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용한 전망을 제공해 준다.

주석 1) 아프리카에서 아사(餓死) 직전에 있는 사람과 미국에서 빈곤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르며, 또 100년 전 우리 사회에서 빈곤하다는 것과 현재의 빈곤한 상태와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주석 2) 시대에 따라 빈곤해지는, 빈곤을 지속시키는 구조와 기제가 달라진다. 1990년대 빈곤 연구시 주의해야 할 점은 우선 ① 생산(일)의 영역에서 단순한 저소득보다 세계화와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빈곤의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고, ② 재생산(생활)의 영역에서는 지속적인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폭등, 의료보장 미비,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소비지출 증가자체가 빈곤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빈곤근로자에 대한 연구는 이 두 영역이 어떻게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근로자의 삶을 규정하는가에 대한 심층적·참여적 접근이 필요하다. 풍요시대의 빈곤에 대해 새롭게 조명한 글로는 조명래(1997)가 있다.

주석 3) Gardell & Johansson(1981) 참고.

주석 4) 생활보호법에 의해 제공되는 급여의 내용과 수준이 충분한 것은 결코 아니다. 생활보호자 중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되는 생계비는 1인당 한 달에 약 8만~9만원으로 최저생활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급여의 수준은 1993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의 11.4%에 불과한데, 이것은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주석 5) 1993년부터 노동부가 통합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이 있긴 하지만, 그나마 적은 수혜인원의 취업률이 낮고 훈련 내용이 부실하여 비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인철외(1995)의 보고서가 이 분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석 6) 생업자금 용자 역시 까다로운 용자조건과 적은 대여액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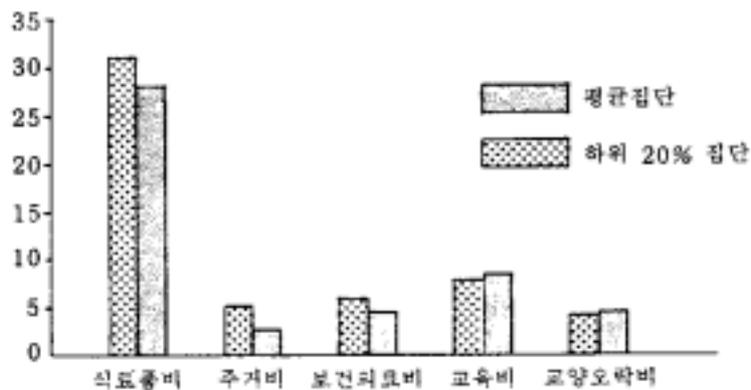
## 2. 생활 영역

생활 영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요소는 안정된 주거 조건이다. 그러나 주거비 부담은 특히 전세가격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1980년대 후반<sup>1)</sup>에 들어서 근로자들의 생활을 가장 괴롭힌 소비항목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많아지므로 1980년대 후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하에 시작된 영구임대주택정책은 최초의 사회주택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조명래·황서중, 1997). 영구임대주택은 1989년 대통령의 전격적인 25만호 건설계획 발표로 급속히 추진되면서<sup>2)</sup>임대대상자인 법정 영세민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만으로 빈곤근로자의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생활보호대상자라는 한정된 빈곤 집단에게만 시혜적으로 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19만호로 축소 조정된 후 임대만을 목적으로 한 사회복지적 성격이 많이 약화된 공공임대주택<sup>3)</sup>정책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200만호 건설계획하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근로자주택정책은 제조업체에서 일정기간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정 영세민도 아니고 정규근로자도 아닌 많은 수의 빈곤근로자에게 집을 마련한다는

일은 아직도 힘든 일로 남아 있다. 따라서 빈곤근로자의 주거생활의 질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전반적인 주거조건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나 근로자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는 대다수의 빈곤근로자들이 어떤 주거의 질을 누리고 있는지 구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소비생활의 영역에서 빈곤근로자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들은 교육비와 의료비이다. [그림 I-1] 에서 볼 수 있듯이 적어도 통계수치상으로는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와 평균적인 소비지출을 하는 가구 사이의 소비행태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하위 20% 집단의 가계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32.8%)이 평균집단(28.2%)보다 높긴 해도 이미 평균집단의 비율에 거의 근접하고 있어, 극빈층을 제외한 빈곤가

[그림 1] 소비지출 구성비 : 평균집단 대 하위 20%에 속하는 소비지출집단



주 : 소비지출 구성비 중 주요 지출 구성비만 포함됨.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1996.

구가 생존적 빈곤 수준<sup>4)</sup>에서는 이미 빠져나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점은 비록 소비행태는 비슷해도 평균집단의 소비지출 총액이 140만원인 데 비해 빈곤가구집단의 총액은 8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7.7%를 쓰는 빈곤가구의 교육비는 9.8%를 쓰는 평균집단 교육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이다. 빈곤가구 자녀의 교육 문제는 세대를 걸친 빈곤 재생산의 주요 기제이므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부문이다. 빈곤가구의 지출 중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6.0%) 역시 평균집단(4.7%)보다 많긴 하지만 절대액에서는 적다. 빈곤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적은 것은 빈곤가구가 평균가구보다 덜 아파서가 아니라 높은 본인 부담률과 고가의 특정검사를 의료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의료보험상의 문제 때문에 의료서비스 이용이 선별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이 빈곤근로자의 가구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실질적 부담을 주고 있는지 깊이있게 조사되어야 한다.

빈곤근로자의 소비생활에 비해 그들의 여가 및 공동체 생활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고임금 시대로 접어들면서 근로자의 여가생활에 일정한 변화가 찾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빈곤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여가생활을 하고 있으며, 지금은 못 하더라도 앞으로 하기를 원하는 여가형태와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덧붙여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 빈곤근로자의 공동체 생활의 질이다. 산업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이익집단(노동조합 등) 활동에서 취미가 같은 동호인 클럽까지 지칭할 수 있는 이 광범위한 공동체 활동은 보다 질 높은 시민생활의 핵심을 차지한다. 따라서 빈곤근로자가 어떤 종류의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빈곤근로자의 생활 영역 삶의 질 연구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

주석 1) 1986~90년 사이의 4년 만에 전국의 주택가격은 68.2%, 전체가격은 85.6% 상승했다(조명래합서종균, 1997, 312쪽).

주석 2) 영구임대주택정책이 급격히 시행된 것은 주택위기의 해소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여 정국의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정치적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는 이영환(1996)을 참조하기 바란다.

주석 3) 영구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997년 영구임대주택의 보증금이 100만~200만원 수준이고 임대료가 4만~7만원 안팎인 데 비해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 800만~1,000만원에 임대료도 조금 더 비싸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는 일반청약저축가입자의 입주 가능성이 높고 임대기간도 5~50년으로 축소되었다.

주석 4)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영세민가구의 앵겔계수(총생활비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는 50%를 넘었다.

### Ⅲ. 研究方法 및 調査對象者의 特性

#### 1. 연구방법

이 연구의 자료는 1997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총 20인의 빈곤근로자와 기타 관련된 대상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되었다. 심층 면접법은 비록 장기간의 참여관찰보다는 떨어지지만 질문지법<sup>1)</sup>보다는 높은 타당도를 가진 자료수집 방식이다. 면접시간은 사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주로 1~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면접대상자의 허락을 받아 응답 내용을 녹음한 후 면접 이후 이를 다시 정리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빈곤근로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빈곤근로자의 개념적 정의

근로능력이 있지만 고용불안정 혹은/그리고 저임금으로 인해 빈곤상태에 있거나 빈곤상태로 전락할 위험이 상존하는 근로자

○ 빈곤근로자의 조작적 정의

① 10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피용자와 가족종사자

② 10인 이상 사업체의 임시직 및 비정규 피용자

③ 각종 임시취업용 건설직 종사자 및 하위 서비스 종사자

④ 그 외 근로자 중 수입이 근로자 전체 임금분포의 하위 20% 안에 포함되는 근로자

조작적 정의와 일치하는 근로자를 심층면접하기 위해 ① 부천 지역 사업장과 ② 강서구 가양동과 중랑구 신내동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면접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부천 지역은 총인구 약 80만명에 근로자인구 10만명 정도를 가진 소도시로서 다른 수도권 지역 도시보다 도시공간이 적어 주로 영세하청부품 사업장이 몰려 있는 곳이다. 연세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각각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이 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는 주로 임시취업용직 건설 혹은 하위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생활보호대상자<sup>2)</sup>가 거주하고 있다.

주석 1) 빈곤 연구에는 주로 질문지법이 사용되었으나 질문지는 빈곤 문제에 대한 자료수집 방식으로 문제점이 있는 방법이다. 우선 빈곤근로자가 집에 있는 시간이 적으므로 대리응답이 많고 질문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 조사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도 크다. 또한 빈곤가구의 경우 응답의 결과가 공적 수혜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소득을 허위보고할 우려가 있고, 항목별 지출에 대해 정확성이 결여된 보고나 무응답을 할 가능성도 크다(이두호외, 1991, 179~181쪽).

주석 2) 우리나라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신청보호주의가 아니고 예산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선정할 수 있는 생보대상자 수를 미리 일정규모로 할당 받아서 그 규모 내에서 결정된다. 게다가 생활보호법 제3조의 생보대상자 자격규정이 너무 후진적으로 엄격해서 주로 노인, 장애인, 모자세대의 비율이 높다. 영세민 보조금이 나오는 생보 거택과 나오지 않는 생보 자활을 가름하는 재산과 소득상의 차이는 거의 없다. 거택보호는 1인당 21만원의 소득과 재산 2,600만원 이하일 때, 자활보호는 소득 22만원에 재산 2,800만원 이하일 때 해당된다.

#### 2. 조사대상자의 특성

면접대상자는 빈곤근로자 17명, 두 곳의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2명, 그리고 부천 지역 노동청년회 회장 1명 등으로 총 20명이었다. 사회복지사와 노동청년회 회장을 제외한 빈곤근로자 17개 사례의 특성이 <표Ⅲ-1>에 요약되어 있다. 개별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부표를 통해 참조 가능하다. 총 17명 중 남성은 10명, 여성은 가구주 3명을 포함해 7명이다. 빈곤근로자의 교육 정도는 중졸 이하이고, 그런 면에서 국졸 수준인 아버지 세대에 비해 큰 진보를 이루진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사대상자의 평균가구 소득은 83만원으로, 1996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인 215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sup>1)</sup> 조사대상자의 약 절반이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를 받고 있었다.

<표 III-1> 조사대상자의 특성 (총 17명 : 개별자료는 부록 참조)

성 별	남자	10명
	여자	7명(가구주 3명 포함)
평균연령	39.7세	
평균자녀수	1.8명	
교육 정도	본인	8.8년
	아버지	6.0년
총가구소득	83.2만원	
	남자소득	76.4만원
	여자소득	50.0만원
주택거주형태	영구임대아파트	12가구
	월세	1가구
	전세	2가구
	자택	1가구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1가구
출신 지역	서울	3명
	강원도	4명
	경기도	2명
	경상도	1명
	전라도	4명
	충청도	3명
생활보호대상자 여부	생활보호 거택	1명
	생활보호 자활	8명
	비생보대상자	8명

주석 1) 같은 해 하위 20%에 속하는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은 88만원이었다(통계청, 1996).

## IV. 貧困勤勞者의 일

### 1. 고용불안정 : 생애 직업이동 상황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대다수가 수없이 직장과 직업을 옮겨다닌 경험이 있었다. 좀더 많은 임금을 주거나 조금 더 나은 작업조건을 찾아 직장을 이동하는 경우 외에도 조금이라도 자본을 가진 빈곤근로자라면 누구나 원하는 자영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계급간 직업이동도 흔한 편이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이러한 잦은 직장/직업 이동의 결과 모두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커리어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으며 결국 근속연수 부족과 영세자영업 실패로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가. 노동시장 내 이동

다음의 두 사례는 전형적인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지금까지의 생애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직업이동을 경험하고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

남성 J씨(26세)는 5살 때 아버지가 배 타고 나가 사망한 이후 바닷가에 살지만 농사를 짓는 가난한 집에서 16살에 중학교를 마치고 처음 ① 전기코드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으나 연탄불을 꺼뜨렸다고 구타하는 등 군대식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어 3개월쯤 일하다 그만두었다. 그 이후 ② 해수욕장이 가까운 집에 돌아가 닭을 잡는 일을 하였다. 잡은 닭은 어머니가 피서객에게 삶아서 팔았다. 그 다음 ③ 17살 때 기계공장에서 2년 정도 일하였으나 또래 친구가 없고 친하던 사람이 다 나가서 그만두고 ④ 구로공구상가에서 호이스트 달아주는 일을 6개월정도 하다가 방위로 1년6개월 근무하였다. 1992년에 제대한 이후 부친으로 돌아와 ⑤ 자동차부품 하청공장에서 2년 동안 일했다. 손동작으로 앞으로 밀고 옆으로 밀고 하는 일만 계속하는 단순노동이었다. 그러다 집안일로 2~3개월 집에 내려가 실업상태에 있다가 ⑥ 약 1년 정도 보너스없이 일당이 4만원 정도인 날일(일용 건설노동)을 했다. 일용직은 공장보다 훨씬 힘들고 부정기적이며 용역업체에 내는 용역비 10% 등 나가는 돈이 많아 그만두고 ⑦ 그 이후 계속 용접일만 1년 2개월 정도 했다. 그러나 눈이 너무 아파져 ⑧ 밸브 조립하는 공장으로 옮겨 3개월 동안 일했으나 잔업해도 임금이 너무 싸 “장가 갈 나이인데 월세 내고 친구들하고 한잔 하면 돈이 거의 없어져” 다시 ⑨ 용접공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용접으로 눈이 아파 결국 ⑩. 지금 다니는 기계 밀링회사로 옮겨왔다.(사례 5)

남성 L씨(36세)는 국민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① 부평공단의 벽시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6개월간 근무한 후 기술을 배우라는 아버지의 말에 따라 ② 양복점에서 시대로 3년간 일했으나 남들 학교 가는 것이 부럽고 더 이상 시키는 대로 복종하기 힘들어 서울로 도망가 ③ 4곳 이상의 립살롱에서 6개월간 일했다. 서비스업은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더 나은 조건을 찾아 그렇게 여러 직장을 돌게 마련이다. 돈은 공장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이 벌었지만 보는 것이 쓰는 것뿐이라 도울 수는 없었다. 그 이후 ④ 부평 봉제공장으로 와서 3년간 일했다. 그 다음에는 목수일을 배우려고 했으나 적성에 안 맞아 그만두었다. 그러다가 ⑤ 음식점 주방에서 그릇 닦는 일을 3~4년 동안 했고, 다시 ⑥ 국제상사 봉제공장에서 3~4년 일하다가 국제상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 ⑦ 프레스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다. 이 10년 동안 6~7군데의 공장을 더 옮겨다녔다.(사례 16)

여성이거나 장애가 있는 남성이라면 더 부정기적이고 더 낮은 임금을 주는 직업내에서는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자주 이동한다.

여성 K씨(40세)는 국민학교 4학년때 작은아버지 집에서 ① 식모일을 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학원에 보내준다고 해놓고 보내주지 않아 16살 때 ② 전구 만드는 회사에서 1~2년간 근무했다. 봉급을 작은아버지가 다 가졌으므로 집을 나와 오빠 집으로 이주한 후 ③ 봉제공장에서 1년간 일하다가 눈이 나빠 그만두고 ④ 야쿠르트 배달만 5년간 하였고 그 이후 ⑤ 화장품 판매로 옮겨 2년간 일한 후 서울에서 안 건축 청부업자가 소개해 준 목수 기술자와 결혼했다. 그러나 남편이 집에 돈을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결혼중에도 ⑥ 파출부 일을 하였다. 본인과 자식에게 심한 폭력을 자주 사용한 남편과는 7~8년 후에 이혼하고 ⑦ 구두 만드는 회사에 2~3년 다녔으나 원래 나쁜 눈이 아프고 본드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 그만두고 ⑧ 보험회사에서 조금 일한 뒤

⑨ 지금까지 부정기적으로 파출부 일을 하고 있다.(사례 8)

남성 L씨(39세)는 척추장애자로 태어나 17살때야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짐을 덜어주기 위해 2~3년 놀다가 ① 전주 장애자복지원에 갔는데 기술은 안 가르쳐 주고 돼지 키우는 노동만 시켜 너무 힘들어 서울로 올라왔다. 장애자 직업 알선해 주는 보라매공원 근처 기관에서 봉제공장을 소개시켜 주어 일을 시작했다. 2년 전 결혼하기 전까지 ② 봉제공장을 40여 번 이상 옮겨다녔다. 장애자라는 이유로 같은 시다(보조)일을 해도 “월급이 23만원이면 나는 17만원 정도로” 정상인보다 5~6만원 가량 덜 받았다. 공장을 오래 있는 경우에는 1년 정도 다녔고, 짧게는 2달도 다녔다. 지금은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2급인 현재의 부인과 결혼하고 영구임대아파트로 이사온 후 근처의 ③ 상가에서 청소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사례 13)

#### 나. ‘계급간’ 이동 : 노동과 자영업

위의 사례들에서처럼 노동시장 내 저임금 직업을 전전하는 빈곤근로자들은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내에서의 불안정성을 탈피하고 노동능력이 없어질 때의 안정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자영업으로 전환<sup>1)</sup>을 가장 바람직한 직업전환으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자영업에서 실패하여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지만, 그들 역시 돈을 모아 다시 자영업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들 빈곤근로자가 시도하는 영세자영업은 노동시장 내의 작업 못지않게 불안정하며, 흔히 이 두 다른 형태의 직업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경우가 많다.

남성 L씨(38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5살 때 신발창 만드는 공장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여 4년 동안 다니다가 기관지가 약해져서 요꼬(스웨터) 만드는 데서 3년간 일을 했다. 그 이후 다시 신발 찍는 공장에서 21살까지 일하였다. 22살 때 결혼해서 그 이후 공사장에서 기와지붕 만드는 노동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3년 동안 쉬었다. 그 이후 기술도 없고 마땅히 할 일도 없었는데 동네 형님이 하는 구두 수선 하는 일을 갑자기 그 형님이 죽는 바람에 맡아서 하기 시작한 지 8년이 되었다. 길손이 없고 공휴일에는 손님이 없는 마포 근처 회사단지여서 1주일에 4일 정도밖에 일이 없으므로 비가 오거나 노는 날은 오후에 이사짐센터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다. 지금 직장을 다니기도, 기술을 배우기도 힘들기 때문에 좀 지저분하더라도 돈 많이 투자 안하고 할 수 있는 적당한 자영업 자리—폐장판지를 수거해서 재생하는—를 알아보고 있으나 장소가 마땅치 않아 잘 되고 있지는 않다.(사례 2)

남성 H씨(46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16살 때 망우리 채석장에서 조각난 잡석을 망태기에 담아서 옮기는 일로 직업을 시작했다. 그 이후 동회에서 급사일을 하다가 이사를 가서 와이셔츠 공장에서 3~4개월 동안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신문배달을 6개월 정도 하면서 야간학교에 다녔다. 타자기 회사에서 연수를 6개월 받고 타자기복합사기 수리하는 일을 10개월 하기도 했다. 20살이 되었을 때는 남대문 시장에서 망을 다 채워 주고 얼마씩 하루에 집주인에게 돈을 뽑아주는 무허가 하숙관리 일을 하였다. 그 다음에는 남대문 시장에서 이자돈 700만원을 빌려 8년 동안 꽃장사를 하였다. 일수를 얻어 썼기 때문에 계속 짝어나가야(원금의 일부와 하루치 이자를 주는 일) 했고 3남 2녀의 장남으로 동생들 교육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돈을 모으진 못했다. 그 이후 시흥동에서 잠시 양초 제조하는 가내공업에 종사하면서 무허가 신학교에 다녔다. 그 다음부터는 ‘노가다’ 만 했는데, 리비아에 7~8개월 나갔다 온 적도 있다. 현재는 도목 일을 배우러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에 다니느라 공사장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사례 12)

여성근로자의 경우 주로 남편과 사별 혹은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남편의 직업이 불안정하고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에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욕구를 갖게 된다. 여성근로자의 공통점은 남성근로자와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직업과 자영업의 폭이 무척 적다는 점이다. 대부분 가사노동과 유사한 작업내용을 가진 파출부나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생각하는 자영업도 식당일일 경우가 많다.

여성 P씨(39세)는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되었다. 사별 이후 일을 시작했으나 나이 든 고졸 기혼여성이 할 일이 거의 없어 유흥업소, 식당, 백화점 등에서 일하였다. 보험회사에도 1년 다녀 보았지만 수급하는 일이 적성에 안 맞아 그만두었다. 그 중 특히 식당일을 많이 했는데, 한 군데 식당에 그렇게 오래 있을 수가 없어 가장 오래 근무한 곳이 3년, 그리고 주로 평균 1년 정도 다녀 지금까지 전전한 식당이 6군데쯤 된다. 그 중간에 장사를 한번 시도하다가 실패해 다시 식당

종업원으로 돌아온 적이 있다. 그 장사 때문에 모아둔 저금을 다 날렸다. 그래도 다시 장사를 시작할 생각인데, 이번에는 그래도 오래 근무해 본 경험이 있는 식당일을 할 생각이나 아직 식당을 차리려면 한참 더 저축을 해야 한다.(사례 1)

여성 L씨(47세)는 약 10살쯤 되었을 때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 돌아가시고 집안사정이 안 좋아져 중학교를 졸업한 후 섬유공장에 1년 반 정도, 가발공장에 4~5년 정도 다니다 1972년 결혼했다. 아이들 출산 이후 가내부업을 하다 학교 들어간 이후 파출부를 4~5개월 하였다. 그 다음에 미용실을 10년 운영해 보았고 그 이후 공장 지대에서 식당 운영을 3년 했는데 불황으로 중소기업들이 부도나는 바람에 망하고 말았다. 약 1년 동안은 장사가 너무 잘 되어 내놓기를 꺼리다가 장사가 안 된 나머지 2년 동안 보증을 포함해 1억 3천을 날렸다. 아직 빚으로 남은 것이 2,3천만원이다. 남편은 사우디에 건설노무자로 나갔다 오기도 하고, 고기 잡는 외항선을 타기도 했지만 실업상태로 있었던 기간도 4~5년에 이른다. 지금은 책상 만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돈을 다 날린 것이 억울해 1개월간 울면서 집에 처박혀서 밖에 안 나온 적도 있었으나 지금은 다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빚이나 갚고 다시 식당이나 미용실을 할 생각이다.(사례 7)

물론 직업이동 없이 신문판매 같은 한 직업만 평생 한 L씨(사례 9, 38세 남성) 같은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는 한 손의 일부가 마비된 장애인으로서 직업이동이 손쉽지 않았던 이례적인 사례이다. 고용불안정은 직업을 자주 이동하는 것 외에도 건설일용직처럼 한 직업 내에서도 봄에서 가을까지만 일이 있고 겨울에는 일이 없는 경우에서도 발견된다(사례 6, 26세 남성 L씨). 건설일용직의 경우 월급제를 실시하기도 하지만 그 경우 큰 업체가 아니면 월급이 적고 또 주변의 공사 의뢰를 거절해야 하고, 일이 없어도 나가 있어야 하는 등 시간상 제약이 많으므로 ‘메뚜기도 한철’ 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일용 건설노동자는 일당제를 선호한다. 이처럼 빈곤근로자의 고용상태는 여러 차원에서 불안정하며, 그 결과 기본적인 삶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태이다.

주석 1) 자영업의 재생산을 촉진시키는 주요 추동요인은 바로 사회복지체제의 결핍이다.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의 결핍은 고령층의 불안정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들은 생애주기의 일정시점을 지나면 복지체제의 미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자영업으로의 전환을 빈번하게 행하게 된다(이재열, 1996. 263~264쪽).

## 2. 근로조건과 건강 문제

앞에 소개된 사례들에서도 잠시 엿볼 수 있듯이 대다수의 빈곤근로자는 실업상태 아니면 직업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고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흔하며 나쁜 건강은 다시 반강제적인 실업상태에 머물게 함으로써 빈곤을 악화시킨다. 면접한 거의 모든 사례가 여러 직업을 옮겨다닌 결과 여러 직업과 관련된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크게 다음과 같은 세 직업군으로 나누어 근로조건을 살펴보았다.

### 가. 영세사업장

대다수의 사례들이 생애 통산 적어도 한두 종류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자주 직장을 옮기는 데는 영세작업장의 나쁜 근로조건도 한몫을 한다.

남성 J씨(26세)가 기계합용접착조립일을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된 데에는 용접일이 독성있는 독한 연기를 마시며 일하기 때문에 피부에 뭐가 나고 눈이 별장게 충혈되었기 때문이다. 병원에 가 약을 넣고 또 먹어 보아도 용접을 그만두지 않는 한 눈이 나올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기계나 조립일은 용접에 비해 월급이 적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다시 용접일을 하고 또 그만두는 일을 수차례 반복했다. 그 외에도 쇠질 중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걸린 허리 디스크가 아직도 낫지 않고 있으며, 구로공구상가에서 일하다 그라인더가 튀어 얼굴에 난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다.(사례 5)

남성 K씨(34세)는 무급유 베어링(기계를 원활히 돌리기 위해 기계 사이에 들어 가는 것) 생산을 하는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걸 깎으면서 나는 분진이 작업장에 항상 차 있으며 깎는 소음이 요란하다. 직업 때문에 병에 걸린 적은 없으나 5~6년 정도 일한 지금 난청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다. 주위의 소음 때문에 난청인 사람이 꽤 있다. (사례 4)

남성 L씨(39세)는 30살쯤 되었을 때 봉제공장 시다로 몇 년 일을 하다가 먼지가 많은 곳에서 너무 낮은 임금으로 잘 먹지도 못하고 장시간 노동을 한 결과 폐결핵에 걸려 목포 국립결핵병원에서 2년간 요양생활을 해야만 했다.(사례 13)

여성 J씨(33세)는 17살때 부산에서 신발 공장에 다니는 일을 처음 시작했다. 신발 미싱 하는 곳은 먼지가 심했으며 장시간 몸을 구부리고 일을 하는 탓에 허리가 심하게 아팠다. 무주에 있는 오빠가 병원에 데리고 갔으나 별 효과가 없어 파스 같은 것만 붙이고 지냈다.(사례 15)

남성 L씨(36세)는 프레스 공장에서 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작업장 사고로 손가락 하나가 기형이 되었다. L씨의 경우는 운이 좋은 예였다. 프레스는 금형이 와서 내리치면 그 틀에 맞추어 철판을 자르는 일로, 죽어나가는 사람을 보기도 했다. 프레스 작업은 8시간 내내 손가락을 철판 근처에 둔 상태에서 단순히 내리치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손가락을 조금씩 잘린 경우가 허다하다.(사례 16)

영세사업장은 작업이 지나치게 단순하면서도 위험하며, 게다가 대부분 잔업을 통해 낮은 임금을 보충하므로 작업시간이 길다. 주 44~46시간의 일 외에 잔업을 월 50~60시간씩 더 하며, 따라서 휴일을 제외한 일주일의 대부분을 아침 8시부터 시작해 오후 8~11시에 끝낸다.

#### 나. 건설공사장

건설 공사장이 영세사업장에 비해 특별히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이 작업장의 문제는 한번 사고가 나면 몇 년을 실업상태로 이끌 만큼 큰 건강상의 손상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일일 용역자들은 청소나 연장 나르기 등 지저분한 일을 맡아 해서 크게 다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주택의 수도, 하수도, 난방, 보일러 같은 내부 설비자일 경우에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그러나 외벽공사 같은 외부 공사자일 경우는 추락하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다(사례 6. 설비담당 건설일용직 근로자, 26세 남성 L씨). 다음 사례는 이런 류의 사고가 빈곤근로자 가계에 어떤 부담을 주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남성 L씨(38세)는 공사장에서 10년 전에 기와지붕 만드는 노동일을 하다가 동료가 던진 벽돌에 허리를 맞고 3년 동안 쉬어야 했다. 그동안 빚을 많이 지게 되었고 3년 동안 쉬 이후에도 허리 때문에 서서 오래 일하는 공장일은 못하게 되었다. 5년쯤 전에는 이삿짐을 나르다가 다리가 부러져 다시 일을 못하고 일수를 내어 사는 생활을 6개월 정도 해야 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이 일을 그렇게 오래 못하니 형편이 필 수 없다.(사례 2)

#### 다. 기타 하위 서비스업

주로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은 예상외로 노동강도가 높고 장시간 서서 하는 일이 많다. 여성근로자들은 가사일까지 함께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만성피로와 더불어 고질적인 질환에 걸리기 쉽다.

여성 P씨(39세)는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허리와 다리에 신경통을 얻어 지금 몸이 아파 쉬고 있는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간다. 지금은 가끔 파출부로만 일을 하고 있다. 신경통을 얻은 것은 식당일이 주로 오래 서서 하는 힘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식당일은 아침 10시에 시작해 저녁 10시에 끝나며, 쉬는 시간은 점심 이후 오후에 식사시간 포함해 2시간 정도가 고작이다. 학교 가는 아이들 도시락과 아침 준비를 위해 6시~6시 반에 일어나 새벽 1시간 되어야 잠자리에 들 수 있다. 항상 피곤하기 때문에 병이 안 날 수 없는 상황이다. 신장결석이 생긴 지도 오래 되는데 너무 아파서 수술하려 했으나 형편이 되지 않아 청계천에서 한약을 10만원어치 지어먹고 참고 있는 중이다.(사례 1)

여성 K씨(40세)는 식당종업원과 파출부 일을 번갈아 하다 우연히 C형 간염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다. 영구임대아파트 주변에는 파출부 일이 변변한 것이 없어 한 달 수입이 고작 40~50만원이어서 지금 병원에도 제대로 다닐 수 없는 형편이다. 의사가 우유, 콩, 고기 같은 것을 많이 먹으라고 하나 '우유를 하나 사도 애들 입에 먼저 들어가야지' 본인 입에는 안 넘어가게 된다. 일 나가는 날에는 5시쯤 일어나 7시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아이들 먹을 저녁을 준비해 놓고 일을 나가 집에 돌아오면 밤 10~11시에 이른다.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 씻지도 못하고 쓰러져 잔다.(사례 8)

여성 C씨(47세)는 월급제 식당일을 하다 지금은 몸에 무리가 와서 일당제로 하루 3만원씩 받고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하고 있다. 몸은 '일하니까 허리, 관절, 다리 뒤통이 그런 데가 맨날 아프고', 무리해 일해서 하혈했을 때 병원에 간 적도 있다.(사례 11)

여성 J씨(33세)는 학교에서 급식 담당하는 식당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일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은 없으나 6명의 식당종업원이 1,700명의 초등학교 급식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일이 너무 힘들다. 아침 8시 반에 가서 오후 3시 반~4시 반쯤 돌아오는데 그동안 앉아 있을 시간이 잠시도 없다. 하루 일당은 2만 4천원으로 보통 3, 4만원인 식당이나 파출부 일당보다 싸다.(사례 15)

남성 L씨(36세)는 그릇 씻는 일을 할 때 세제가 손에 닿아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피부병에 걸린 적이 있다. 고무장갑은 미끄러워 대부분 목장갑을 끼고 일해서 세제가 직접 손에 묻는다.(사례 16) 그 외 주로 나이 많은 남성근로자가 하는 아파트 경비원직 역시 격일제 근무로 근무조건이 좋지 않은 편이다.

남성 K씨(64세)는 주공임대아파트에서 아파트 경비일을 하고 있는데 24시간 일하고 그 다음날 24시간 쉬다 보니 일은 힘들지 않더라도 잠을 못 자 너무 괴롭다. 임대아파트라 저소득 맞벌이부부가 많아 경비원 많이 쓰면 불평하므로 인원에 제한이 있다. 더구나 가만히 앉아 있는 일밖에 할 것이 없으므로 몸에도 좋지 않다. 그 다음날 아무리 커튼을 치고 잠을 자려 노력해도 낮에 3시간 이상 잘 수가 없다. 밤잠 못 자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나 혹시 근무중 졸거나 자기라도 하면 그 다음날 관리사무소에서 대번 추궁하는 전화가 걸려온다.(사례 17)

빈곤근로자는 따라서 먼지와 소음, 그리고 위험이 상존하는 영세사업장이나, 크게 다칠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장, 아니면 장시간 과중한 노동을 하는 하위 서비스직에 근무하면서 건강이 많이 상한 상태에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근로생활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을 따지기 전에 작업장에서의 건강을 보전하는 생존적 차원의 문제가 최소한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더 급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부분의 빈곤근로자는 위험하거나 힘들다고 해서 그 직업을 피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다. 잔업이 하루의 여가시간을 거의 뺏더라도 기아(起亞)사태로 잔업이 없어져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근로자들은 잔업을 하길 원한다(사례 16, 영세 중소기업근로자, 36세 남성 L씨). 어떤 나쁜 조건의 일이든 안정적으로 돈만 준다면 그런 일자리를 얻게 된 것을 '큰 행재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례 20, 사회복지사 K씨) 빈곤근로자가 많다. 앞에서 소개된<사례 15>의 여성이 하는 학교 급식담당 식당일은 그 고된 노동량에도 불구하고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가까우므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빨리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대다수 여성근로자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장이다.

### 3. 교육과 기술의 부족 : 낮은 삶의 질과 빈곤의 재생산

심층면접 대상 빈곤근로자는 거의 예외없이 형제가 많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그 중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일찍 사망하거나 병에 걸려, 여성인 경우 살림을 떠맡거나 남성인 경우 어린 나이부터 일을 시작해야 했던 경우(사례 5, 영세 중소기업근로자, 26세 남성 J씨; 사례 7, 식당종업원, 47세 여성 L씨; 사례 8, 식당종업원/파출부, 40세 여성 K씨; 사례 11, 식당종업원/파출부, 47세 여성 C씨; 사례 12, 일용직 건설, 46세 남성 H씨), 또 어린시절 특히 아버지가 본인이나 어머니에게 폭력을 사용했던 가정에서 자란 경우(사례 9, 신문판매원, 38세 남성 L씨; 사례 10, 부정기적 가내부업, 37세 여성 K씨)도 있었다. 이러한 가정의 정신적·물질적 자원의 부족은 <표 III-1>의 조사대상자 특성에도 나와 있듯이 중졸에 조금 못 미치는 빈곤근로자들의 평균교육에 잘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많은 수의 빈곤근로자가 어린 시절 잘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을 어떤 식으로든 몸에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재교육을 받거나 좀더 나은 조건으로 노동시장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일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J씨(사례 2, 구두수선공, 38세 남성)는 어렸을 때 정비기술을 배우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반대해서 못 배운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은 '경력 10년 20년 된 사람도 쫓겨나는 판에 국졸인 학벌도 그렇고 해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자영업이나 할 생각을 하고 있다. K씨(사례 4, 영세

중소기업근로자, 34세 남성)도 무슨 새로운 기술을 배워 직장을 옮기기보다는 퇴직금 받아 장사라도 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에도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한다. 나이가 조금 어린 편인 J씨(사례 5, 영세 중소기업근로자, 26세 남성)는 자동차정비 기술을 배우고 싶고 또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으나 지금 당장 시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또 재교육이나 기술교육을 받기 원했던 빈곤근로자도 현실상 어려움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K씨(사례 8, 파출부/식당종업원, 40세여성)는 마사지하는 것을 배워 피부관리사가 되어 보려 했으나 이미 너무 전문직화되어 있어 국교 4년 중퇴인 자신의 학력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또 그 후 조리사 자격을 따려 했으나 C형 간염에 걸려 안 되었고, 간병인이 되려고 한 노력도 역시 건강진단상 통과되기가 어려워 그만두고 말았다. C씨(사례 11, 식당종업원/파출부, 47세 여성)는 직업교육을 받는 것을 가로막는 또다른 현실상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뭘 배우고 싶어도 그동안 돈을 못 벌면 생활을 어떻게 하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다음 두 사례는 기술습득을 위해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

남성 H씨(46세)는 ‘노가다’ 일을 하다가 지금은 도목 일을 배우러 서울 종합직업학교에 다니고 있다. 지금까지 한 달 보름을 다녔고 앞으로 6개월간 더 다녀야 한다. 그 학교 나가느라 한 달 이상을 일을 못해서 빚을 진 상태로 있다. 지금은 기술 배울 동안 나온다는 영세민지원금 21만원이 통장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일을 못하는 것은 일을 하게 되면 수업이 시작하는 6시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각하면 강사한테 야단을 심하게 맞는다. 보통 일하는 날에는 5~6시 사이에 일어나 남대문 일일취업안내소에 가서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는데 일자리가 어디 있을지 몰라 퇴근을 6시쯤 하면 학교에 거의 8시간 되어 도착하게 된다.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3시 반쯤 출발해야 한다. 학교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지각 문제로 괴롭히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지각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다. 바라고 싶은 점은 남대문까지 안 나가도 되도록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장소에서 건설현장을 그대로 연결시켜 주었으면 하는 점이다.(사례 12)

여성 J씨(33세)는 남편이 알콜중독과 관련된 병으로 누워 있어 낮에는 학교 급식담당 식당일을 하고 밤에는 조리사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에서 실기를 배우고 있는 중이다. 그러다 보니 너무 피곤하다. 보통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 학교 보낼 준비를 하고 8시 20분쯤 직장인 초등학교에 가서 정신없이 일하고 집에 오면 4시쯤 되는데 6시까지 학원 가기 전에 집안을 치우고 저녁을 준비해 둔다. 집에 돌아오면 10시가 넘게 된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밀린 집안일을 해야 한다.(사례 15)

두 사례 모두 새 기술을 배우는 동안 생활비를 못 버는 상태를 참거나 아니면 초인적인 하루 스케줄을 감내해야 하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기술훈련을 받는 근로자의 절대수와 기술훈련을 시작하려는 열의가 부족한 것은 노동부가 제공하는 기술훈련 프로그램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이지 못하고 훈련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빈곤근로자 대부분이 취득할 수 있는 기술이 제한되어 있고 당장의 생계유지를 위해 근시안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사례 20, 사회복지사 K씨). 자영업을 자신의 빈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생각하게 된다(사례 18, 사회복지사 A씨).

## V. 貧困勤勞者의 生活

### 1. 주거 생활의 질

생활영역에 대한 면접을 한 결과 주거비 부담이 생활의 큰 위협 요소인 빈곤근로자에게는 영구임대주택정책이 혜택을 준 점도 있으나 빈곤가구의 집중거주<sup>1)</sup>로 인해 삶의 질을 저하시켜 부정적인 정책 결과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나마 그 혜택에서 제외된 빈곤근로자들은 월세를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고 간혹 근로자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과중한 융자금 상환부담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등 전반적인 주거생활의 질은 낮은 편이었다.

#### 가. 영구임대주택

외면상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많은 서울의 여느 아파트단지와 별다른 것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최근에 지은 곳이 많으므로 스쳐 지나가며 보기에는 더 깨끗한 느낌이 드는 단지도 있다. 면접한 거주자들의 이전 주거지가 재개발 전의 불량주택이나 반지하 월세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만큼 이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 “깨끗해서 좋다” (사례 7, 식당종업원, 47세 여성 O씨)거나 “셋방 살 때처럼 뺄하면 사글세 보증금 올려라, 애들이 떠든다고 나가라, 뭐 이런 일이 없어 살기 좋다” (사례 2, 구두수선공, 38세 남성 O씨)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이전에 태릉의 방 하나짜리 전세 160만원의 흠으로 만든 별들집에서 부엌을 개조해 만든 방에서 살면서 장마 때마다 물을 퍼내야 했던 C씨(사례 11, 식당종업원/과출부, 46세 여성)는 심지어 “거기에다 대면 대궐”이라는 표현을 쓴다. 면접대상자 중 척추장애자인 O씨(사례 13, 건물청소부, 39세 남성)에게도 가까이하고 싶어도 자신을 꺼려하고 눈치를 주던 일반 주택가에 비해 다른 장애인들도 많은 이곳이 살기에 좋은 곳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영구임대아파트의 단지 내부로 들어가 다녀 보면 일반아파트 단지와는 달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의 거친 욕설이 들리기도 하고 음란 낙서가 주변 곳곳에 그려져 있음도 발견하게 된다. 길거리에는 실업상태인 중년 남자들이 대낮인데도 어슬렁거리거나 무리지어 앉아 있는 모습도 눈에 띈다.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소녀들은 사회복지관의 화장실에 열 명 정도 모여 앉아 태연히 담배를 피우고 있다. 걸모습을 떠나 조금만 깊이있게 관찰해 보아도 이런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거주자들도 깨끗함과 월세방 주인으로부터의 해방감을 넘어 또 다른 문제들이 이 지역에도 상존함을 깨닫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거주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단지의 문제점들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 1) 고용 문제

상당수의 빈곤가구가 노점상이나 가내부업에 의존해 살아온 만큼 영구임대단지에서 그런 종류의 일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철거민이나 생활보호자가 쉽게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생각을 못하는 이유는 ‘리어카 장사’ 같은 생계터전이 이전의 지역사회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사례 18, 사회복지사 A씨). 가내부업은 노점상처럼 직접적으로 단속되지는 않으나 개수제로 만든 물건을 아파트 앞에 자주 쌓아놓아야 하는데 그런 일이 금지되어 있어 이전의 거주지처럼 자유롭게 일을 시작할 수가 없다. 또한 부업의 종류도 없고 단가가 싸서 이전의 연립주택에서 종이를 접어 일본에 수출되는 포대를 만드는 일로 30만~40만원의 수입을 올렸던 K씨(사례 10, 37세 여성)의 경우 이 단지에 이사와 소득감소의 타격을 받고 있다. 주변에 과출부 쓰는 사람이 없어 비슷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K씨(사례 8, 40세 여성)는 “없는 사람, 장애자를 일단 집만 지어 데려다 놓고 이 부근에 일할 수 있는 일터전은 만들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 때문에 교통비를 많이 쓰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그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전의 전세금과 월세보증금을 빼내 쓸 수 있는 형편에 이른 빈곤가구들이 대부분 자영업으로의 전업을 시도하였다가 그 돈을 다 날려버리게 되는 경우가 속출했다는 점이다. 좌절이 심한 가구주는 그 일 때문에 자살을 기도하기도 한다.<sup>2)</sup>

## 2) 시설 문제

영구임대아파트의 평수는 아파트단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조사대상단지는 식구수나 기타 다른 기준에 의해 배정한 11평, 14평, 그리고 소수의 18평을 갖추고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11평형이라면 실평수는 6~7평, 18평형이라도 실평수가 11평 정도에 불과한 형편이라 대다수의 거주자들이 좁은 주거공간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었다. 필자가 들어가 살펴본 아파트는 현관 왼쪽에 현관보다 조금밖에 더 크지 않은 방 하나와 마루, 안방 겸 침실로 사용되는 3~4평 정도의 공간 외에 좁은 복도 한 칸에 마련된 싱크대와 목욕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부모를 모시고 있어 식구가 많은 경우, 그리고 형제자매가 아니라 남매를 둔 가정에서 특히 좁은 상태에 대한 불편이 매우 크다. K씨(사례 10, 부정기적 가내부업, 37세 여성)는 11평형의 집에서 시부모와 딸, 그리고 남편까지 다섯 식구가 살고 있는데 “좁고 불편한 것을 생각하면 한정없어서 대강 맞추어” 살고 있다고 말한다. 깨끗함을 칭찬한 O씨(사례 10, 식당종업원, 47세 여성)도 남편과 더불어 24세, 25세의 아들과 딸을 둔 처지라 아들이 밖에 나가 외할머니와 함께 살 수밖에 없음을 무척 가슴 아파 하고 있었다. 외할머니가 취로사업으로 나가 다녀야 하므로 “애가 굶고 다녀 속이 아픈” 것이다. 이 가구는 철거대상자라서 18평형을 배정받았는데도 그러하다. “이왕 주는 것 방이라도 좀 크게 해 주지” 하는 말에서 거주자들이 좁은 시설에 대한 불만을 엿볼 수 있었다. 남매를 둔 여성가주 K씨(사례 8, 과출부/식당종업원, 40세 여성)도 사춘기를 맞이한 딸이 11평형의 집에서 오빠나 엄마와 방을 함께 쓰는 것을 싫어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K씨(사례 14, 건물청소부, 38세 여성)는 11평형에 달린 조그만 방이 너무 작아 쓸모가 없으므로 남편과 딸 둘과 함께 마루에서 자고 있는 형편이다.

## 3) 교육환경 문제

앞에 소개한 두 가지 문제점은 특히 사춘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걱정하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교육환경 문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어머니들로 하여금 빨리 돈을 벌어 이곳을 뜰 수 있기를 바라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아파트단지 주변의 환경이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불안감이다. “거주자들 중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아 혼자 있기 심심하니까 밖으로 다 나오고, 그러면 누군가 꼭 술을 사오고 그리고 싸움이 이어지는 것이” 임대아파트단지의 특징이다(사례 20, 사회복지사 K씨). 그래서 처음 이사온 거주자들은 “남자끼리, 여자끼리 맨날 상가 앞에서 싸우고 또 술 먹고 싸우고, 게다가 아파트 내에서는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이 많아 시끄러워 잠을 못 이루는”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사례 7, 식당종업원, 47세 여성 O씨).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은 다음과 같이 이런 상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여성 K씨(식당종업원, 40세): 이사온 환경이 마음에 안 든다. 어른들이 맨날 술먹고 싸우고 공원에서 소변 보는 등 모범이 되는 일이 없다. 중학교 학생도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운다. 내 아들도 마찬가지다. 애들도 성적(性的)으로 너무 빨리 노출된다. 술챗담배를 하며 어울려서 자퇴하고 집을 나가는 애들이 많아, 나쁜 친구의 영향이 걱정스럽다.(사례 8)

여성 K씨(부정기적 가내부업, 37세): 이 단지의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 교육 문제라고 생각한다. 빈곤한 사람과 모자가정, 아니면 어머니가 없는 가정이 너무 많아 국교 2년 정도의 아이가 본드 흡입하고 중고생은 담배를 아무데서나 피운다. 아파트가 2층에 있어 술 먹고 다투는 소리가 들려 너무 시끄럽다. 하루에 몇건인지도 모른다. 우리 아버지가 부부싸움 끝에 어머니를 수차례 입원시키는 폭력을 쓰며 살아서인지 나는 부부싸움에 심한 공포감을 느끼는데 여기서는 너무들 싸워서 정신 차릴 수가 없다. 내 아이는 4살밖에 안 되었는데 여기 아이들은 그 나이부터 ‘씨팔’ 소리가 절로 나온다. 그리고 애가 여기 사는 장애인들 흉내를 내는 것 때문에 미치겠다. 그렇게 아픈 사람들 흉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 타일렀다. 애가 유치원 갔다오면 ‘엄마 누구는 아빠가 없대’ 맨날 그런 소리만 한다. 우리 아파트 옆동네 네 살짜리 심장병 걸린 아이가 있는데 수술하자마자 그 아이엄마가 집을 나갔고 그래서 남편이 아이엄마를 찾아 다니는 동안 국민학교 2학년인 그 아이 형은 거지처럼 돌아다니고 있다. 어른이 없으니 그 집을 아지트 삼아 큰애들이 찾아와 담배 피우고 본드 흡입하고 술마시고 그런다. 그러니 나도 애를 잘 키울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고 싶어도 애를 놔 두고 다닐 수가 없다.(사례 10)

남성 H씨(일용근설직, 46세): 간질병을 앓는 집사람이 다리 부분이 크게 멎들어 들어오기도 해서 이 주변에서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본다. 그래서 폭언과 폭행이 많은 이 동네가

두렵다. 11살인 아들이 학교에서 자꾸 매맞고 다니는 것도 싫다.(사례 12)

여성 K씨(건물청소부, 38세): 부부싸움으로 맨날 뒤통이 깨지고 애들이 본드 흡입하고 담배 피우는 이 단지에서 스스로 탈출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내 애들은 다른 애들이 이상하다고 나가서 같이 놀지 않는데, 그런데 그 때문에 애들이 너무 폐쇄적이 되어가는 것 같이 불안하다.(사례 14)

여성 J씨(학교급식담당 식당일, 33세): 알콜중독인 남편 때문에 많이 싸우고 살아 별 할말은 없고 우리도 남들과 마찬가지로 생각은 하나 애들이 걱정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특히 학교에 가서 일반아파트단지에서 사는 애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점이 걱정이다.(사례 15)

이런 사례들은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빈곤문화가 차츰 자리잡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덧붙여 인접해 자리한 일반아파트단지 내에서 영구임대단지는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낙인’ 찍는 경향<sup>3)</sup>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빈곤 가구를 집단 거주시키는 문제는 따라서 그 정책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후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나.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주택상황

영구임대주택의 혜택을 못 받는 근로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이 크다. 면접 대상자 중 유일하게 자택을 가진 K씨(사례 4, 영세 중소기업근로자 34세 남성)는 집에서 1,000만원 정도의 보조와 그동안 모은 돈을 합해 현재 거주하는 4,200만원짜리 24평형 빌라를 부천에 얻을 수 있었다. 그래도 10년짜리 1,200만원의 용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월급에서 한 달에 15만원씩 갚고 있는 중이다. K씨의 경우는 적은 돈이라도 집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근로자아파트로 대출받은 그의 동료들은 용자금 갚느라 거의 적자 가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생긴 근로자 아파트의 분양가는 약 5,500만원 정도로서 일반분양과 1,000만원의 차이가 있다. 대부분 은행대출을 1,400만원 정도 받고 나머지는 보험을 들은 후 대출받거나 아니면 집안식구를 통해 대출받는 형식으로 분양비를 내고 있는 형편이다. 대출금액이 너무 커서 퇴직금 받아 일부 변제하고 다른 직장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나마 근로자아파트 분양혜택도 받을 수 없는 영세사업장이나 일용직 빈곤근로자는 대부분 전·월세에 산다. O씨(사례 6, 일용직 건설설비담당, 26세 남성)는 2,600만원에 방 두 개 짜리 전세집에서 살고 있다. 결혼할 때 그동안 모은 돈으로 1,500만원짜리 방 하나 전세집에서 살 수 있었는데 그 돈을 빼서 아버지의 집을 구입했기 때문에 전세비는 장모에게 빌린 돈 1,000만원을 포함해 전액 대출받았다. 회사나 제조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라-"나같은 사람이 정말 근로자인데"-사원주택이나 근로자주택의 분양혜택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안타깝고, 그런 점에서 정부가 주택 문제 해결에 더 많은 관심을 쏟기를 바란다.

부모의 도움이 전무하거나 아니면 부모에게 적은 월급을 모아 보조할 필요가 있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더욱 사정이 나쁘다. O씨(사례 16, 영세중소기업근로자, 36세 남성)는 20년 가까이 일해 최근 겨우 800만원짜리 전세방을 부천에 얻을 수 있었다. 부천지역 영세사업장 근처의 주거시설이 대부분 그렇듯이 좁은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리고 화장실은 공동으로 써야 하는 전세방이다. 그것도 얻기 힘든 만큼 주변에서 '독하게 돈을 잘 모은 경우'로 인정받고 있다. J씨(사례5, 영세 중소기업근로자, 26세 남성)는 지금 10년이 넘는 고된 노동생활을 통해 100만원 보증금에 월세 7만원짜리 창고를 개조한 방에서 산다. 방 길이는 '누우면 딱 맞을 정도'이고 역시 화장실은 공동으로 써야 한다. 부천에서 그런 월세방을 방세가 싼 곳을 찾아 세 번 정도 옮겨다녔다. K씨는 농사를 짓는 어머니에게 시골에서 올라와 번 돈 중 450만원 정도를 부쳐드려야 했고 잘 알던 후배에게 카드 사기를 당해 그가 쓴 카드비 250만원을 물어주었기 때문에 현재 저축액으로 재작년에 든 주택은행 적금 180만원 정도가 있을 뿐이다. 곧 결혼할 생각이므로 주택은행 용자를 얻어 800만원 정도의 전세방을 얻을 생각이다. 태어나서부터 월세방만 전전한 그는 지금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 보는데, 지금 생각하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짜증나고, 10년 동안이나 일했는데 아직도 집이 없는 게" 화가 난다. 그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것은 주택 마련을 어떻게든 쉽게 해주는 것이다.

주석 1) 영구임대주택정책과 같은 공공주택 프로그램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대부분 도시내의 대규모 단지에 건설되므로 지속적인 정부지원이 없는 한 빈곤가구의 집중거주로 인해 슬럼화, 황폐화 되는 문제가 있다(이두호외, 1991, 131쪽).

주석 2) K씨(사례 10, 부정기적 가내부업, 37세 여성)는 그 단지내로 이사와서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1년 정도 후에 다 써 버리고 3명이 좌절해 자살했다고 한다.

주석 3) 예를 들어 일반아파트단지 내에서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영구임대단지 거주 주민의 아동을-지체아도 많고 학습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받고 있지 않고 있다(사례 20, 사회복지사 K씨)

## 2. 주요 소비생활의 패턴 : 자녀교육과 의료 문제

평균수입 80여만원에 자녀까지 4식구 안팎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빈곤근로자의 생활은 팍팍하다. 대부분 그 적은 수입에서 과거에 진 빚을 갚거나 주택 마련 혹은 미래의 자영업 자금을 위해 출혈적인 저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 그 생활비 중에서 빈곤근로자가 가장 정신적·물질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야를 크게 교육비와 의료비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생활보호대상자라 할지라도 그 혜택이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을 만큼 크지 않다. 육성회비를 제외한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교육 보호로는 현재 교육제도가 직·간접으로 요구하는 사교육비를 충당할 수 없다. 의료보호 자활혜택을 받아도 입원시 20%를 부담해야 하는데, 중병으로 장기간 입원해야 하는 환자가 있는 빈곤근로자 가구에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금액이 될 경우가 많다.

### 가. 자녀교육과 교육비 지출상황

빠듯한 생활비로 교육비를 많이 지출할 수 없는 빈곤근로자는 자녀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죄의식을 갖고 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제 더 이상 별 기대를 갖지 못하게 된 빈곤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sup>1)</sup>이 가장 날카롭게 표출되는 부문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 잘 되고 집 한 채 있게 되면 그만인" P씨(사례 1, 식당종업원 파출부, 39세 여성)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못해 주는 것이 미안"하므로 "돈이 없더라도 무리해서 학원에 보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프지 않을 때 약 8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P씨는 40만원 정도를 저축한 후 나머지 돈의 대부분을 두 딸의 교육비로 쓰고 있다. 40만원 정도의 수입밖에 없는 K씨(사례 3, 청소부, 40세 남성)도 정신지체 증상이 있는 첫 딸의 동생인 국교 4학년생에게 한 달에 3만원씩 비용이 드는 학원에 보내고 있다. 이런 형편임에도 "과외를 많이 시켜 주고 싶다고" 본인의 학벌은 무학인 K씨의 부인은 말한다. 앞의 사례들보다 조금 형편이 나은 편이지만 "집에 와서 생활비를 이리 찢고 저리 찢고 하다 보면 남는 것이 거의 없는" K씨(사례 4, 영세 중소기업근로자, 34세 남성)는 한 달 평균 115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적금 25만원과 용자금 상환비 15만원 외에 아이들 교육보험으로 15만원, 그리고 아직 7살과 4살에 불과한 남매에게 유치원비와 가정학습지값 등으로 20만원 이상을 쓰고 있다. 부천공단 지역 영세사업장 빈곤근로자의 부인의 약 70~80%는 남성근로자 임금의 50~70% 정도를 받으면서 같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생활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서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주된 이유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자녀교육은 여성 가구주의 경우 특히 어려운 문제이다. K씨(사례 8, 파출부/식당종업원, 40세 여성)의 남편은 이혼 후 한번도 양육비를 보내온 적이 없다. 현재 본인의 몸이 아프고 파출부 일자리가 없어 45만원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는 자퇴한 아파트단지 아이들과 어울려 점점 나빠져 가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기회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춘기에 들어선 남매가 반항할 때마다 전 남편에게 양육권을 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도 한다. 남편이 알콜중독으로 누운 지

1년이 넘어 실질적 가장의 역할을 하느라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거의 없는 J씨(사례 15, 학교 급식담당 식당일, 33세 여성)는 심하게 하는 부부싸움으로 "애들 성격이 이상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척추장애자인 L씨(사례 13, 건물청소부, 39세 남성)는 조금 성격이 다른 자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역시 지체장애가 심한 부인과 딸 둘을 가진 그는 거택 생활보호 혜택으로 받는 26만원과 본인이 상가 청소로 번 돈 45만원을 합쳐 71만원의 소득밖에 없지만, 아직 3살과 1살밖에 안 된 두 딸을 위해 20만원이 넘는 교육보험을 들고 있다. 장애자인 자신의 몸이 불편해 남들처럼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어 딸들이 나중에 커서 그 돈을 받아 생활의 어려움을 조금 덜기를 바라는 배려에서이다.

#### 나. 의료비와 의료보험의 문제점

빈곤근로자가 실업과 고용불안정과 더불어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때는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이 장기간의 입원과 치료를 요하는 건강 문제를 가졌을 때이다. 빈곤근로자 가족은 몸이 아프다 해도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데, 그것은 의료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검사와 치료비가 많고, 적용된다 해도 본인 부담이 상당 정도 남아있는 현행제도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무시할 수 없는 건강 문제가 지속되거나 아니면 그 때문에 병세가 악화되면 전세금을 빼서 쓰거나 빚을 지는 등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음 사례들을 통해 이런 현실을 살펴볼 수 있다.

남성 L씨(구두수선공, 38세)는 돈이 좀 모이려고 하면 본인과 가족의 병으로 일이 계속 안 되고 있다. 허리를 다쳐 3년간 일을 못할 때 병원보다는 침 맞고 물리치료를 계속 받았다. 큰 딸이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병원비로 장사하려고 모아둔 돈 150만원을 쓸 수 밖에 없었다. 소아마비인 부인은 신장까지 안 좋아 봄에 한 달간 입원했었는데 그 때문에도 빚을 졌다. 생활보호자에게 주어지는 의료보험에 대한 불만은 많은데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부인이 복수에 물이 차 꽤 위험했을 때 1차적으로 큰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일단 정해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생활보호 2종(자활)의료보험 환자는 좀 차별하기도 한다. 조직검사나 초음파, X레이 등이 보험 혜택에 포함되지 않고 입원비의 일부도 내야 했으므로 총 450만원이 들었다.(사례 2)

남성 J씨(영세 중소기업근로자, 26세)는 의료보험이 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험비는 내는데 정작 아플 때 검사 받으려면 검사비를 따로 내야 하니까 그렇다. 회사에서 해주는 정기검진은 너무 대강이라 비용 때문에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못 받고 있다. 용접일 할 때 마신 연기 때문인지 폐도 나쁜 것 같고 몸도 좀 이상해진 것 같다. 의료보험은 잔병에는 좋으나 큰병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사례 5)

여성 K씨(과출부/식당종업원, 40세)는 C형 간염에 걸렸음을 작년부터 알았으나 올해부터야 생활보호 자활에 해당하는 의료보험 혜택이 시작되어 그동안 병원에 못 가 간염이 악화되었다. 지금은 갈 때마다 1,500원씩 내며 주 3, 4회씩 다니고 있다. 그 외에 시골에서 치료 안해 생긴 백내장으로 한 눈이 안보이나 그 때문에 병원에 갈 엄두는 못하고 있다.(사례 8)

남성 L씨(신문판매원, 38세)는 부인이 신장이식 때문에 아직도 병원 중환자실에 있다. 생활보호자활인데도 신장이식은 의료보호대상이 안된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 7, 8차례 병원에 입원한 비용과 신장이식비용 합하여 전세값 뺀 돈과 저축으로 모은 총 3,500만원 정도를 날렸다.(사례 9)

여성 K씨(부정기적 가내부업, 37세)는 모시고 사는 시부모가 뇌졸중으로 아파서 총 100만원의 수입 중 약 50만원 정도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아도 따로 돈을 내야 하는 영양제와 아미노산 등의 약값과 병원비로 나간다.(사례 10)

여성 J씨(학교 급식담당 식당일, 33세)는 식당 일용직으로 버는 돈 50만원 중 20만원쯤이

알콜중독으로 인한 말초신경염으로 앓아 누운 남편의 의료비로 나가고 있다. 그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으로 이사오느라 뺀 전세값 1,000만원 중 반쯤을 이미 소비하였다. 약 20년이 넘도록 술을 지나치게 마신 남편은 그 신경염 외에도 건강상 다른 문제가 많은데 특히 간이 나빠 지금은 몸무게가 40kg밖에 안나간다.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 보아야 하는데, 어차피 죽을 것 돈 많이 든다고 남편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사례 15)

공교육제도와 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복지의 미비가 가져오는 생활고와 더불어 높은 물가를 오랫동안 감내해야 했던 빈곤근로자는 현상태에 대해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 K씨(사례 2, 구두수선공, 38세 남성)는 "박정희 때는 노동일 해도 일자리는 많았고 '80년대 전두환 때는 물가가 안정되어 살기 좋았는데 지금은 뭐 만원 가지고 파 하나 배추 하나 사면 다 없어지는 사정이라" 살기가 힘들다고 한다. K씨(사례 4, 영세 중소기업근로자, 34세 남성)에게도 사정은 별다르지 않은데,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현직장에서는 월급이 올라도 물가는 더 올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석 1) K씨(사례 4,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34세 남성)에게 중산층이 쓰는 사교육비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그가 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애가 어떤 때 길에서 과자 먹는 애를 물끄러미 보기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심정을 저도 알거든요.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으니까. 나중에 애가 커서 학교 갔을 때 다른 애들이 학교 끝나고 무슨 학원이니 과외니 하고 갈 때 자기만 혼자 터덜터덜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할지..... 그럴 때 그럴 상황이라면 무리를 해서라도 가르칠 것 같아요."

### 3. 여가와 공동체 생활의 특성

지금까지 살펴본 빈곤근로자의 일과 생활로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여가나 공동체 생활의 질은 무척 낮다는 것이다. 그 중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중산층 수준의 소비적 여가생활을 따라 해보려는 근로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개인 및 가족단위의 여가는 사치스러운 말에 속하고, 여가보다는 휴식이 필요한 사례들이 대다수였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기 상황의 개선을 도모하고 여가의 질을 높이려는 빈곤근로자는 거의 없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일과 생계를 꾸려가는 이외에 쓸 수 있는 물질적·시간적·정신적 여유와 자원을 절대적으로 결여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일이다.

#### 가. 개인 및 가족단위의 여가

빈곤근로자들이 보내는 전형적인 평일과 주말의 생활은 물론 직업에 따라 시간대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천편일률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후의 시간은 밀린 가사일이나 TV시청으로 메운다. 주말도 평일과 다름없이 일하는 경우도 있다. 혹시 시간이 나면 집에서 잠을 자거나 그동안 못했던 집안일을 하고 가끔은 외출을 한다.

남성 J씨(영세 중소기업근로자, 34세): 집사람은 나를 보고 하숙생이라고 한다. 6시 반에 일어나 씻고 아침 먹은 후 7시 반쯤 출근해서 커피 한 잔 하고 작업준비하면 8시 반이다. 점심시간은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이다. 회사 재정사정상 본사 사무실이 공장에 내려오면서 그전에 있던 탁구장이 없어졌다. 일은 단순반복작업으로 하다 보면 아주 짜증이 난다. 집에 오면 9시 반인데 그때면 애들은 자고 있다. 어떤 날은 그래서 아침에 밥먹을 때 일부러 아이들을 깨워 잠결이라도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 1주일을 이야기 한번 못해 보고 지낸다. 9시 반부터는 잘 때까지인 12시까지인 집사람과 이야기하거나 TV를 본다. 12시까지 잠을 안자는 것은 그냥

자버리면 한 일이라곤 회사 갔다와서 잔 일밖에 없어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무지무지하게 허무하기 때문이다. 주말엔 주로 집에 있지만 가끔 아들만 데리고 야구장을 찾거나 산에 올라가는 일이 있다. 가족단위로 놀러다니지 못하는 것은 차가 없어 기동성이 없기 때문이다. 애 둘을 데리고 나가면 식구가 넷이니까 택시가 안 태워 준다. 유일하게 태워 주는 것은 개인택시뿐이다. 그렇지만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집에 있기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일요일도 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적도 있다.(사례 4)

여성 K씨(부정기적 가내부업, 37세) : 지금 부업을 잠시 쉬고 미용학원에서 기술을 배우는 중이다. 아침 6시 반쯤 일어나 남편이 7시쯤 출근하게 도와준다. 그래서 밥은 주로 저녁에 먼저 해놓고 잔다. 시부모님이 일어나시면 다시 식사준비를 하고 다 치운 후 아이를 씻겨 유치원에 보내고 미용학원에 10시까지 가서 6시에 집에 돌아온다. 저녁은 7시에 준비하는데 아이와 조금 놀아주고 빨래와 청소하느라 TV를 볼 시간은 없다. 남편은 10시쯤 돌아오는데 그때 남편이 아이에게 뭘 배웠냐고 물어보면 아이가 엄마가 물어봤는데 또 물어본다고 신경질을 낸다. 이런 일과가 습관이 되어서 편하게 쉬면 불안하다. 주말도 평일과 같이 남편이 출근한다. 외출하는 일은 거의 없다. 여가 생활은 하고 싶으나 할 수 없으므로 우울증 생기지 않으려고 가능한 한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주말에 쉬면 월요일에 다시 하루 일과 시작하기가 무척 힘들어진다.(사례 1)

물론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임금인상과 소비생활의 변화에 따라 특히 가족부양의 부담이 없는 젊은 근로자층의 여가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부친 지역 영세사업장에서조차 비록 대부분 중고차이긴 하지만 근로자가 차를 소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J씨(사례 4, 영세 중소기업근로자, 34세 남성)도 부인으로부터 지금은 대개 차가 있으니 생활이 쪼들리더라도 적금 들지 말고 차부터 사자는 제의를 여러 차례 받았다. 그가 일하고 있는 약 50명 규모의 사업장에서도 작년에는 차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나 작년에만 1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J씨는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대책없이 차를 살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O씨(사례 16, 영세 중소기업근로자, 36세 남성) 역시 약 30% 정도의 동료는 중고차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서 동료한테 "지금은 다 차를 타고 다니니까 낭비가 아니다. 그러니 형도 차를 마련해 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 새로운 자동차문화 때문에 여가생활이 스키를 타러 갔다오는 것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왜 돈도 못 벌면서 스키를 타러 다니냐"는 O씨의 질문에 그 젊은 근로자는 "그런 데 가야지만 더 나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볼 수 있고 그래야 그 수준에 맞추어 살 수 있다"는 대답을 했다고 한다. 이런 젊은 층각 근로자들은 저축보다는 지겨운 일상에서 탈피하는 길로 남들에게 '풀리지' 않기 위해 좋은 옷을 사고 '나이트'를 가서 기분 푸는 일을 선택한다. O씨 역시 층각이지만 이제 젊지 않기 때문에 나이들면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나이 먹기 전에 돈을 모아 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는 또 이런 변화를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1987년 이전에는 지금보다 돈이 좀더 없었더라도 더 아껴 수입의 일부를 시골집에 보내주는 생활방식이 근로자 사이에 지배적이었고, 또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서로 돕는'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젊은 근로자들의 여가생활은 그렇게 소비적이고 개인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물론 1998년초부터 본격화된 경제위기로 빈곤근로자의 차 소유나 소비적 여가생활은 앞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 형편이 어려운 빈곤근로자들은 아직도 집에서 쉬는 휴일도 변변히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J씨(사례 5, 영세 중소기업근로자, 26세 남성)는 지금까지 한번도 연차를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없다. 대부분 돈으로 주거나 대체근무를 했었다. 만일 시간이 나면 TV에서 본 스쿼시라는 운동을 해보고 싶으나 그의 월급으로는 스포츠클럽에 가기도 힘들다. 그래서 사회체육시설이나 공원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 주길 원한다. 운동을 좋아한다는 O씨(사례 6, 일용직 건설설비담당, 26세 남성) 역시 사회체육시설이 있으면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여성 가구주로 자녀양육과 가사와 직업을 동시에 병행하느라 휴일이나 휴가를 갖는다는 생각을 해볼 겨를조차 가질 수 없는 빈곤근로자는 "혼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며칠 폭 쉬고 싶다"(사례 15, 학교 급식담당 식당일, 33세 여성 J씨)거나 애들만 크면 "빈 집도 많다니 시골에 내려가 채소나 꽃을 키우면서 살고 싶다"(사례 8, 파출부/식당종업원, 40세 여성 K씨)는 여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장애자에게는 그것마저 어려운 일이다. 척추장애자 O씨(사례 13, 건물청소부 39세 남성)는 고향이 부산이어도 지금까지

바닷가 구경조차 한번 한 일이 없다. 그가 바라는 여가는 "돈 벌어서 아이들 데리고 우리나라를 좀 다녀 보는" 것이다.

#### 나. 공동체 생활

노동조합운동은 임금이나 작업조건 개선의 효과뿐 아니라 다양한 모임과 행사를 통해 동질적인 노동자문화를 키우고 가족이나 개인 위주의 여가활동과는 또다른 차원의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빈곤근로자에게는 일요일 노동조합 행사에 참여하는 일이 유일하게 본인을 위해 보내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부천 지역 중소기업 중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대부분 노동조합이 있지만 경영난과 점점 증가하는 근로자의 개인주의적 경향<sup>1)</sup> 때문에 운영이 순조롭지 않다. 게다가 10~50명대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이제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노동조합운동을 통한 공동체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사례 16, 영세 중소기업근로자, 36세 남성 L씨),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일용직이나 하위 서비스직 근로자들은 노동조합활동을 할 기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더욱 공동체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갖기 어렵다.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들은 아주 고된 노동에 종사하고 밤 늦게 돌아오다 보니 이해관계를 확실히 따지는 이웃 일반아파트 거주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옹호-예를 들어 고장난 신호 등을 고쳐달라는 식의 요구-를 위해 만드는 기본적인 자조조직조차 없다. 실업자들끼리 '시골'식으로 어울리고 서로를 방문하는 사적인 모임이 우세한 편이다(사례 20, 사회복지사 K씨).

주석 1) 면접에 응했던 근로자 중 유일하게 노동조합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진 O씨(사례 16, 영세 중소기업근로자, 36세 남성)는 6월 항쟁을 전후해 노동운동을 영웅시하는 분위기는 이제 다 사라졌다고 말한다. 옛날에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조차 "나는 정말 순수하게 노동자를 위해 일했지만 나한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너도 정신차리라"고 자기 일에만 전념하는 경향이요 또 그런대로 굴러가고 있던 회사가 노동조합 때문에 망했다는 뒷말 때문에 노동조합운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 VI. 結論 및 政策提言

대표성있는 소수 표본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빈곤근로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다양한 차원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빈곤근로자는 낮은 직장·직업 이동과 실업으로 삶의 가장 기본적인 안정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 문제는 특히 국가가 제공하는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기업이 제공하는 사적복지가 공공복지의 기능적 대체물로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단순한 고용 문제의 차원을 넘어 빈곤근로자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근속연수가 짧고, 또 길다고 해도 충분한 사적복지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기업에 취업될 기회가 적은 빈곤근로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분류되어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지 않는 한 주택 마련의 희망없이 좁은 전·월세에서 불안정한 주거생활을 오래 견디어 내야 한다. 직장이동을 자주하고 자영업으로 옮기려는 목표를 가지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위험하고 노동강도가 높아 직업병을 유발하는 나쁜 근로조건이다. 본인부담률이 높은 의료보험은 병든 빈곤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과 빈곤상태를 동시에 악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런 상태를 극복하고 좀더 좋은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교육과 기술훈련밖에 없으나 그것 역시 미비한 기술훈련 교육과 생계 걱정으로 인한 빈곤근로자 자신의 의욕부족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문제는 빈곤근로자 자신의 낮은 교육수준이 자녀세대까지 전이될 확률이 무척 크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빈곤근로자는 중산층이 사용하는 만큼의 사교육비뿐만 아니라 대학진학에 필요한 비용 역시 마련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영구임대주택정책으로 인해 빈곤한 청소년의 학교 중퇴와 탈선을 조장하는 나쁜 교육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빈곤근로자는 질 높은 여가생활은 거의 바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보다는 고된 노동에서 잠시나마 쉴 수 있는 단기적이고 규칙적인 휴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결과에 비추어 빈곤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빈곤근로자의 고용불안정과 그에 따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실업보험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포괄적이고 학력에 따라 다단계로 운영되는 직업훈련과 직업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술훈련 기간중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어도 생계비에 근접한 훈련비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육비 용자 프로그램을 통해 고등교육의 비용을 낮추어 빈곤근로자의 자녀교육 기회가 증진될 수 있어야 한다. 덧붙여 막대한 사교육비와 교육의 기회불평등을 자아내는 과외가 고등교육기관 진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줄이는 정책대안이 빠른 시일내에 찾아져야 한다.

셋째, 이미 세워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들이 더 건설적으로 실업상태에서 남는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업 안내나 운동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빈민을 집단거주시키는 정책은 지양하고 빈곤근로자의 일반주택 및 아파트 내의 입주비용을 보조해 주는 정책이나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일반가구를 적극적으로 혼합 입주시키는 방법으로서의 선회를 고려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전국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택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하위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씩의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영세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보조와 철저한 안전점검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의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해 장기 입원환자를 둔 빈곤가구의 의료비 부담률을 경감해야 한다.

다섯째,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체육시설의 설립을 통해 빈곤근로자가 여가활용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낮추어 주어야 한다.

삶의 질 세계화는 점증하는 국가간 경제통합, 즉 경제의 세계화가 그 목표의 성취를 무척 어렵게 만들고 있을 때 제안되었다. 경제의 세계화와 IMF시대의 구조조정은 저기술·저임금 직종의 상대적 쇠퇴, 그리고 고용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을 통해 빈곤근로자의 수와 빈곤으로 인한 고통을 함께 증가시킬 것이다. 그런 이유로 특히 첫번째의 정책방향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고 수행할 구체적인 노력이 빠른 시일내에 요구된다. 고용조정의 도입으로 비록 개별기업 내에서의

고용안정은 사라졌지만, 지속적인 기술교육으로 다른 기업에의 취직이 최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전생애를 통한 외부노동시장에서의 직업안정성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 參考文獻

- 김진구(1995),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노동자계급」, 『동향과 전망』, 25.
- 노인철 외(1995), 「저소득층 실태변화와 정책과제 : 자활지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사관계부문 실무작업반(1993), 「신경제 5개년계획 : 노사관계재정립(안)」.
- 박광준(1997), 「빈곤과 사회대책」, 『빈곤문제와 사회발전』, 부산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1995), 「한국 근로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 윤병식 외(1996), 「한국인의 삶의 질 :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두호 외(1991), 「빈곤론」, 나남.
- 이영환(1996), 「영구임대주택의 정책결정과정」, 『주택연구』, 4:1.
- 이재열(1996), 「경제의 사회학 : 미시 - 거시 연계분석의 이론과 방법」, 사회비평사.
- 이현승(1997), 「한국인의 삶의 질」, 『한국 사회학』, 29, 여름호.
- 조명래(1997), 「신빈곤에 대한 시론」, 『경제와 사회』, 34.
- 조명래·서종균(1997), 「노동력 재생산 조건 변화와 노동자계급의 주거빈곤」, 『6월 민주항쟁과 한국사회10년』 (II), 학술단체협의회(편), 도서출판 당대.
- 채창균(1996),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사회 삶의 질」, 『동향과 전망』, 30.
- Gardell, Bertil and Gunn Johansson, eds., (1981). *Working Life: A Social Science Contribution to Work Reform*. John Wiley & Sons.

#### 附錄

<부표 1> 사례별 취업연령별 취업성별 및 직업

● 반근근로자

사례 1	P씨	여성 39세	식당종업원/ 과출부
사례 2	L씨	남성 38세	구두수선공/ 이삿짐센터 일용직
사례 3	K씨	남성 47세	건설일용직/ 청소부
사례 4	K씨	남성 34세	영세 중소기업근로자 50인 규모
사례 5	J씨	남성 26세	영세 중소기업근로자 10인 규모
사례 6	L씨	남성 26세	일용직 건설설비담당
사례 7	L씨	여성 47세	식당종업원
사례 8	K씨	여성 40세	식당종업원/과출부
사례 9	L씨	남성 38세	신문판매원
사례 10	K씨	여성 37세	부정기적 가내부업
사례 11	C씨	여성 47세	식당종업원/과출부
사례 12	H씨	남성 46세	일용직 건설
사례 13	L씨	남성 39세	건물 청소부
사례 14	K씨	여성 38세	건물 청소부
사례 15	J씨	여성 33세	학교 급식담당 식당일
사례 16	L씨	남성 36세	영세 중소기업근로자 50인 규모
사례 17	J씨	남성 64세	아파트 경비원

● 기 타

사례 18	A씨	여성 31세	강서구 가양동 사회복지관 과장
사례 19	C씨	남성 31세	부천지역 노동청년회 회장
사례 20	K씨	남성 30세	중랑구 신내동 사회복지관 복지과 주임

<부표 2> 사례별 자녀수, 교육수준, 주택거주형태, 출신지역, 생보 여부, 소득, 저축, 빚

	자녀 수	본인교육	아버지교육	주택거주형태	출신지역
사례 1	2	12 고졸	6 국졸	영구임대	전라도
사례 2	2	6 국졸	6 국졸	영구임대	충청도
사례 3	2	6 국졸	12 국졸	영구임대	강원도
사례 4	2	12 고졸	6 국졸	자택	강원도
사례 5	미혼	9 중졸		월세	강원도
사례 6	2	12 고졸	0 무학	전세	서울
사례 7	2	9 중졸	14 고대졸	영구임대	서울
사례 8	2	3 국중퇴		영구임대	전라도
사례 9	1	9 중졸		영구임대	강원도
사례 10	1	9 중졸	16 대졸	영구임대	서울
사례 11	1	6 국졸	0 무학	영구임대	경기도
사례 12	1	9 중졸		영구임대	경상도
사례 13	2	6 국졸	6 국졸	영구임대	전라도
사례 14	2	12 고졸	0 무학	영구임대	충청도
사례 15	2	12 고졸	0 무학	영구임대	전라도
사례 16	미혼	5 국중퇴	6 국졸	전세	경기도
사례 17	3	12 고졸		주택공사임대	충청도

	총가구소득	본인소득	월평균저축	총저축	빚	생보여부
사례 1	80만원	80만원	40만원			생보자활
사례 2	110만원	110만원			1,200만원	생보자활
사례 3	40만원	40만원				생보자활
사례 4	115만원	115만원	40만원	2,000만원		비생보
사례 5	80만원	80만원		180만원		비생보
사례 6	125만원	125만원	20만원		2,000만원	비생보
사례 7	130만원	50만원	78만원		2,500만원	비생보
사례 8	45만원	45만원			200만원	생보자활
사례 9	38만원	38만원	15만원	300만원		생보자활
사례 10	100만원	기술습득중				비생보
사례 11	155만원	55만원	15만원			비생보
사례 12	21만원	기술습득중			45만원	생보자활
사례 13	71만원	45만원		600만원		생보거택
사례 14	70만원	20만원			700만원	생보자활
사례 15	50만원	50만원		500만원		생보자활
사례 16	80만원	80만원	20만원	860만원		비생보
사례 17	105만원	55만원	30만원	30만원	2,000만원	비생보

〈심층면접 지침서〉

A. 배경자료

1. 성별(면접자 기입)
2. 연령
3. 출신지/서울에 온 시기
4. 가족, 동거인수
5. 본인 학력/ 아버지의 학력
6. 월평균 소득

7. 월평균 지출

8. 현직업/직종(구체적으로 : 직장종업원수, 고용상태, 승진 가능성, 직위, 1년중 고용일수)

B. 고용불안정과 주거불안정

1. 지금까지의 생애동안 겪은 실업과 직업이동의 경험(수)과 내용

2. 최근 5년 동안의 실업과 직업이동의 경험과 내용

3. 주택상황 및 거주 이전의 정도:

(비교 가능성-영구임대주택/재개발 이전의 지역 ;

주거불안정이 고용상태에 미친 영향 및 그 반대의 경우 : 주관적 만족도)

4. 교통 문제, 평균 출퇴근시간의 추이

C. 근로조건과 건강

1. 근로조건에 구체적 내용, 산업재해, 직업병의 경험 및 가능성

2. 근로조건과 현재 혹은 과거의 건강상태와의 관계

3. 의료비 지출 상황과약, 의료혜택의 상황 및 필요성 조사

D. 근로자 본인의 빈곤 재생산

1.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된 데 본인의 교육 수준 및 기술 정도가 미친 영향-개별 경험담

2. 재교육, 기술훈련의 경험 유무 및 효과, 기술, 사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주관적 느낌

3. 자립과 직업이동을 위한 자금조달노력 실태 및 저축상황

4. 채무상황-주로 누구에게서 어떻게 필요자금을 빌리는가

E. 자녀를 통한 재생산

1. 자녀교육 실태 및 학자금 조달방식; 어느 정도의 돈이 교육비로 지출되나 - 과도한 사교육비를 중산층이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한 주관적 느낌

2. 생활환경조사-자녀의 친구들, 청소년들이 하는 오락과 여가, 주변의 문화시설, 여성의 가사분담 정도, 엄마가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여성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의 존재 여부

F. 문화 및 여가생활

1. 전형적인 근로일(평일)의 생활이 어떤지

- 가족을 위한 시간

- 개인을 위한 시간

- 일하는 시간

2. 주 평균 여가시간 및 활용 내용

3. 문화생활의 경험 유무 및 내용

4.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및 문화생활의 내용

- block leisure (한꺼번에 많은 여가를 가지는 것) vs.

- piece leisure (틈틈히 여가를 가지는 것)

G. 공동체 생활 및 사회운동의 경험

1. 빈곤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집합행동 - 일(영세사업장) 혹은 생활(재개발 반대 등등)에 참여한 경험 혹은 참여하고 싶은 의사

2. 빈곤을 극복하거나 빈곤상태의 완화를 위해 거주 공동체(이웃) 혹은 일공동체가 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생활(예 : 지역탁아소, 계 등)

3. 사회운동 경험 - 노동 혹은 환경운동

H. 기타 질문

1. 왜 가난해졌다고 생각하는가? (개인의 무능력 혹은 사회구조적인 문제)

2. 가난하지 않은 중산층에게 가장 부러운 것은?

3. 주거, 교육, 건강의 문제 중 빈곤한 현재 상태에서 가장 많이 압박을 주는 요소는?

4. 자녀들은 본인보다 더 잘 살게 될 것으로 믿어지는가?

5. 앞으로 5년간이 현재보다 더 살기 쉬울 것으로 예상되나, 아니면 그 반대인가?

6. 필요한 복지가 회사에 의해 주어지길 원하나, 아니면 국가가 나서서 해주길 바라는가?

7. 지금보다 여유자금이 좀 많이 생긴다면 미래를 위해 저축하길 원하는가, 아니면 그동안 유보했던 소비와 여가생활에 사용하겠는가?

8. 본인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빈곤상태 탈출이 어렵다고 생각하는가?